性이 色인 眞空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⑮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원문〉 "아난아 네가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여래장 가운데에 성(性)이 색(色)인 진공(眞空), 성이 공(空)인 진색(眞色)이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여 법계에 두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의 양(量)에 응하느니라. 업(業)을 따라 현발(現發)하는 것이거늘 세간은 무지하여 의혹 되어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나니, 모두 식심(識心)으로 분별하고 계탁하는 것이라.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실다운 뜻이 없느니라."

〈강해〉 부처님이 아난에게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하여 거듭 말씀해 주는 대목이다. "성(性)이 색(色)인 진공(眞空)"이라는 말은 성(性) 자체에 색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곧 여래장 가운데 색(色)이 될 성질이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성(性)과 상(相)을 두고 말할 때, 색은 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여기서는 성(性)에서 색상(色相)이 나올 수 있는 분(分)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진공(眞空)은 여래장 자체다. 공(空)이면서도 색(色)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색이면서도 자체는 공하다는 말이다. 청정하다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고, 본래 그러하다(本然)라 한 것은 본래 여래장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의 양(所知量)에 응한다"는 말이 매우 미묘한 말이다. 여래장 안에 본래 갖춰져 있던 것이 중생의 마음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가령 사람이 불을 발견하고 또한 전기를 발명했다면 본래 있던 불이 사람에 의해 현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기를 발명한 것도 본래 있던 전기를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니 이러한 것이 모두 중생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된다. 또한 이것이 중생이 알아낸 정도의 수준에 맞춰지는 것이므로 소지량(所知量)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따라고 아는 정도에 응하는 것이 결국 업(業)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원래 업은 중생이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중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인과 개념과 결합되어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다. 업은 어떤 개체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탈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불교는 무아론(無我論)을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도 신(身), 구(口), 의(意) 등에 의한 행위를 선악으로 구분하고, 도덕적인 모범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업을 다양하고 폭넓게 설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생사의 문제도 업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문에 여래장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 중생의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 미혹하여 인연이다, 자연이다, 한다는 것이다. 인연이란 화합하는 것이다. 씨앗이 땅속에 뿌려져 싹이 터 자라는 경우를 예로 들면 씨앗이라는 인이 땅, 땅속의 수분, 공기 햇빛 등의 조건에 의하여 싹이 터서 자라는 것이 인연의 화합인 것이다. 자연은 인연이 아니므로 불화합이다. 인연이다, 자연이다,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이다. 식심의 식(識)은 육식(六識)으로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분별심이다. 분별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것을 계탁(計度)이라 한다. 이 식심 분별로 계탁하는 것을 희론(戱論)이라 하고 또한 망상(妄想)이라 한다. 허망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중생의 망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의식의 작용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망상은 진리에 어긋나는, 전도된 생각이다. 진로(塵勞)에 의해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켜 괴롭히는 번뇌가 된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으며, 바깥의 대상 경계에서 촉발되는 것이 있다. 이때는 객진(客塵)이라 하며, 번뇌를 본래는 없었던 것이 외부에서 온 손님처럼 와 있는 것이라 하여 객진번뇌(客塵煩惱)라 한다. 어느 선사의 법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하루 내내 밤낮없이 망상과 번뇌에 사로잡혀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하는 모든 것이 망상으로부터 나온 것뿐이니, 도대체 어디에 쓰고자 그러는가?"

〈반야불교연구원장〉

두 번째 척추순화, '선천원기' 각성으로

〈先天源氣〉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⑮ 척추 순화

손바닥 위에 공이 얹힌 듯한 기감이 생겨나면 이번에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본다. 그런 다음 손바닥의 진동과 심장의 진동을 함께 느껴본다. 손바닥이 둥둥하고 울릴 때, 짧은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낚아채듯이 노궁의 구멍 속으로 공을 빨아들인다. 이때 손목에 약간의 스냅을 가해 준다. 공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손목 쪽이 뻑뻑해진다. 그러면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의 통증은 머리나 흉부 쪽에서 빠져나오던 냉기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옴' 자 발성법을 통해 장부 순화를 더 한 다음에 진동관을 해야 한다. 들숨에 손목까지 빨아들인 공을 날숨에 손바닥 위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 다시 공의 형태를 만든다. 이번에는 공을 팔뚝뼈까지 끌어들인다. 날숨에 다시 손바닥으로 공을 내보낸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을 대추혈까지 끌어올린다.

기운이 손목을 지나 뼈 속을 통과할 때 빽빽한 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열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노궁에서 대추혈까지 기운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대추에서 명문까지 척추뼈 경로를 열어준다.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노궁과 대추, 대추와 명문 사이를 따로 열어준 다음 연결해 준다. 숨을 들이쉬면서 공을 노궁에서 대추까지 끌어들인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쉴 때 그대로 대추에 머물게 한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대추에서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공을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도 경로가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막힌 부분이 있으면 날숨에 그 자리에 공을 머물게 하고 들숨에 다시 끌어내린다.

대부분 흉추 4번, 5번, 6번 사이가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리는심 장과 위장으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이다. 이렇게 해서 대추와 명문 사이의 경로가 열리면 노궁과 명문을 서로 연결해 준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노궁에서부터 팔뼈를 통해 대추혈까지 공을 끌어들인 다음,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끌어내린다. 내쉬는 호흡에 맞춰, 명문에서 척추를 따라 대추, 어깨를 지나 손바닥까지 기운을 다시 옮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단계의 척추 순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 척추 순화는 '선천원기(先天源氣)'가 각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선천원기를 '쿤달리니'라고 한다. 척추뼈는 선천원기의 통로이다. 선천원기는 선천기(先天氣)와 원기(源氣)가 합쳐진 것이다. 선천기는 생명이 수정란에 깃들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혼의 에너지이다. 원기는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 때 생성되는 적정(寂靜) 에너지이다.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게 되면 영성이 혼절하고 혼성만 활동한다. 이 시간이 3일 정도 유지되는데, 이때 적정 에너지가 생성된다. 육체에서 영혼이 처음 들어온 자리가 척수의 '황정'이다. 척수의 황정에는 선천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와 영성이 적정에 들었을 때 생성해 내는 원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 에너지가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내장되어 있다. 그 자리가 명문이다. 선천원기는 육체생명의 수명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선천원기가 소진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육장과 연결되어 있고 세포의 텔로미어와 연결되어 있다. 육장으로부터는 습득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를 제공받으면서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텔로미어를 충전시켜서 세포수명을 유지시킨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척추뼈를 타고 흐른다. 충맥을 통해 육장과 교류하고 경락과 핏줄, 신경을 통해 세포와 교류한다. 노궁을 통해 척추로 끌어들인 공은 '후천기(後天氣)'이다. 후천기란 별에서 생성되는 공간 에너지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⑮ 일승불법의 이치

오온은 죽을 수 없어

세상은 모양과 크기 또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명체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해 보이는 힘에 따라 우월한 것과 우월하지 못한 것에 차이를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험담하게 부추겨, 자신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게 만든다. 생명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서 차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상대보다 우월함을 찾는 데 정신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텅 빈 볍씨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탕의 단맛에 젖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만다. 불현듯 원력을 세웠다가도 인연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지고, 다급한 생활이 앞서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경스럽지만 엉뚱한 질문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아마 대답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표현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망설이게 될까? 대부분 한두 번 이상 많은 생각을 해봤겠지만, 이 해답을 얻기 위해 끝까지 탐구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인간이 향유할 만한 재미라는 것은 없고, 딱히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싶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답을 구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듭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 다양한 태어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약난생(若卵生) 약태생(若胎生) 약습생(若濕生) 약화생(若化生) 약유색(若有色) 약무색(若無色) 약유상(若有想) 약무상(若無想) 약비유상(若非有想) 비무상(非無想)', 여기에도 엄청 다양한 조건이 결합하는 뭇 삶의 태어남이 존재하고, 서로 교차하며 유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어남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만둘 수도 없다. 이처럼 어찌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태어남을 진짜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태어남에서 겪는 사사로운 고통을 괴로움으로 착각한다. 부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덟 가지 바른 가르침을 말씀하신다. 이 여덟 가지 바른 가르침 또한 불필요한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오온에게 멈춤은 더한 괴로움으로 와 닿는다. 우리는 이 더한 괴로움이 오온의 속임수인 줄 알지 못하고 사실처럼 느끼게 된다. 오온의 괴로움이 속임수로 와 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려져 환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괴로운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남 자체가 진짜 괴로움인 것이다.

우리는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진리에 자신의 힘을 집중하여야 오온의 괴로움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오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개체의 괴로움이라기보다는 허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미혹이다. 미혹을 걷어낼 진리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그것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부 오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잔꾀만을 원하고 진정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른 소리는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온의 고통을 바르게 보는 것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참구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